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6/01/05~2026/01/11]

2026.01.12

[로봇] CES 2026 리뷰

- CES의 주인공이 된 현대차. 아틀라스 첫 시연. 구글과 AI 협력도
- 현대차와 삼성, LG의 로봇 추진과 더불어 부품 사업에 진출하는 협력사들
- 레거시 로봇도 활황. 일본 로봇공업회 산업용 로봇 수주 증가 전망

[방산] 연초부터 강한 방산

- 방산 업종에 훈풍이 되어주는 트럼프의 신년 행보. 국방비 증액 계획도
- 베네수엘라 사태, 美 그린란드 영토 매입 이슈, 이란 반정부 시위 등 불안한 세계
- UAE, 사우디 등 연초부터 커지는 중동 수주 기대감

[항공] 2025년 12월 국제선 리뷰

- 대한항공 통합 관련 노선 재배분. 미국·인니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선정
- 아시아나항공, 1월 14일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
- 에어버스를 사는 중국 항공사들. 보잉 구매하는 알래스카항공

[조선] HD현대중공업의 26년 목표

- 삼성중공업 MSRA 취득 추진 보도. HJ중공업과 SK오션플랜트는 취득 임박.
- 캐나다 잠수함, 독일과 치열한 경쟁. 비서실장과 산업부 장관 급파
- 미국 국방장관, HII 조선소 방문해 속도전 주문

[해운] HMM 인수 난항

- 포스코, HMM 인수전 이탈 기류. 매각 또 엎어지나
- 美 USCG, 베네수엘라 연계된 유조선 2척 나포. 러시아와 긴장 고조
- 북유럽 해상, 내륙운송 비상. 겨울 폭풍으로 멈춰선 물류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CES 2026 리뷰

CES 2026의 주인공은 로봇이었음. 피지컬 AI의 실제 구현 단계 진입. CES 이후 휴머노이드 양산 접어들면서 부품 밸류체인 확정될 것이며, PoC를 통한 효용성 검증 단계에 진입할 것.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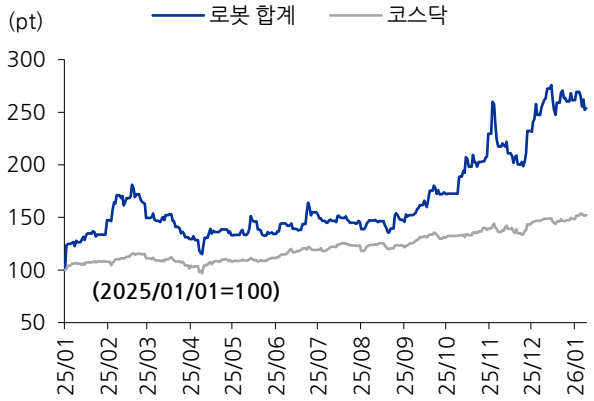
[CES 2026 리뷰]

- 당초 예상대로 CES 2026의 주인공은 로봇이었음.
- CES 2025에서 확산되었던 피지컬 AI가 실제 구현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 확인. 전체적으로 로봇 비중과 완성도가 높아졌고, 현대차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성과가 기대 이상.
- CES 이후 휴머노이드가 초기 양산기 진입하면서 부품 밸류체인 내 공급 기업들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PoC를 통해 로봇이 실제 쓸모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할 것.
- 반도체/센서/배터리 등 모든 산업의 방향성이 로봇에 맞춰지고 있음. 로봇 산업의 성장은 주변 산업에 큰 낙수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
- 국내 대기업들이 완제품 시장을 주도하면서, 그룹사와 협력사, 로봇 부품 전문사까지 연쇄적으로 기대감 커지는 상황. 다음 모멘텀은 2~3월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이벤트로 넘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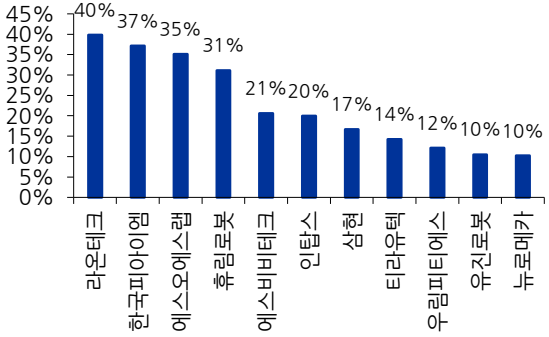
Key Chart: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01/05~01/11)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현대위아 "28년 로봇 매출 4,000억" 로봇 사업 집중 육성

[휴머노이드]

-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CES 최고의 로봇 선정
- 현대차그룹, "로봇 상용화·대량생산 본격화 단계"
- 뉴로메카, CES서 '제로샷' AI 휴머노이드 공개

[부품/SW/기타]

- 삼성 노태문 "로봇, 제조 AX에 집중. 로봇 M&A 검토"
-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로봇 부품 올해 양산"
- LG전자 "美 빅테크 손잡고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 확보"
- 삼성전기 장덕현 "로봇 관절 구동부품 진출 검토"
- 삼성전기 "멕시코 공장 재가동. 휴머노이드 부품 생산"
- 로보티즈, 412억원 자사주 매각. 우즈벡 공장 추진 속도
- 로보티즈 역대급 채용. 경력 무관 신입 모집 多
-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로봇핸드 이달 양산 돌입
- 원익로보, CES서 新 핸드 공개. 사람 比 110%·21자유도
- M.AX 얼라이언스, CES서 '한국형 휴머노이드' 기술 공개

[Global]

- 보스턴다이나믹스, 구글 딥마인드와 로봇 AI 협력
- 일론 머스크 "3년 내 로봇이 외과의사 능가"
- 모빌아이, 이스라엘 휴머노이드 '멘티 로보틱스' 인수
- 中 휴머노이드 작년 글로벌 출하량 美 압도
- 빈그룹, CES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퀄컴과 협력
- 日 야스카와전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한다
- 일본, 26년 산업용 로봇 수주 1조엔 돌파 전망

Weekly Keyword

연초부터 강한 방산

연초 방산주 강세가 두드러짐. YTD +28% 수익 기록 중. 지정학 불안감 고조가 주요 요인. 긴박해지는 상황들에 한국의 강점인 납기가 다시 한 번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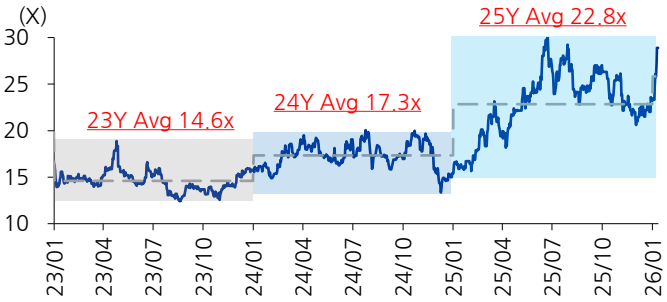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8)

[연초부터 강한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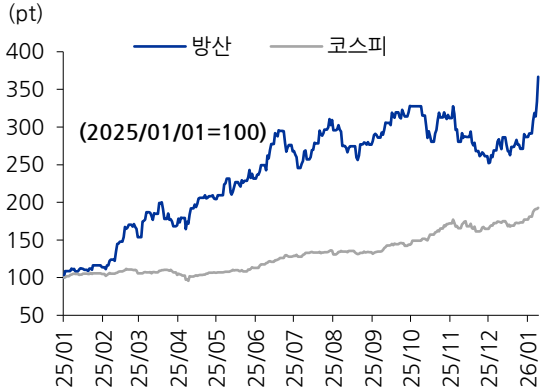
- 연초 방산株 강세. 벌써 YTD 수익률 +28% 기록 중.
- 주된 강세 이유는, 지정학 불안감 확대 때문. 러-우 휴전 이슈 가능성 있으나, 어지러운 이슈가 더 많음. 일단 연초부터 미국-베네수엘라 사태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이슈 재점화, 심상치 않은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예멘 분리주의 세력을 둘러싼 사우디와 UAE의 기싸움까지 지정학적 불안정성 고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2천조원으로 증액 요구하고, 방산 기업들이 배당할 돈으로 생산 주력을 지시하면서 군비경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긴박해지는 상황들에 한국의 공급 능력이 재차 주목 받을 가능성. 25년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5.6조원 폴란드 천무 사업 수주로 스타트를 끊은 수주 랠리는 26년 내내 이어질 전망. 방산업종은 다시 한 번 22년으로 회귀. 대규모 수주 후 27년 이후 실적 성장 흐름 기대.

Key Chart: 방산 12MF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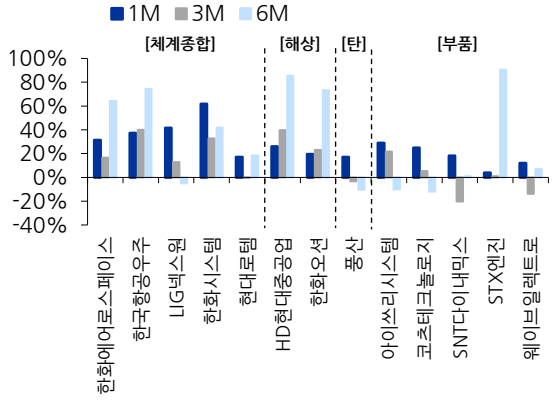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방산 주요 뉴스(01/05~01/11)

[수주/계약]

- 한화, 스페인 자주포 수주 '제동'. 유럽 내부 싸움에 '불똥'
- 인도네시아, KF-21 '블록-2' 16대 선점 나서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공모채 발행규모 5,000억으로 증액
- LIG넥스원, 사우디 국방부와 '비궁' 국산화·현지생산 협상
- KAI 핵심 부품 공급' 이브 에어, eVTOL 첫 비행 성료
- 한화, 해벅AI와 '美해군 공급' 자율운항 함정 공동개발

[기타]

- 블랙이글스, 26년 첫 일정 사우디 방산전시회 WDS 참가
- UAE 국방장관 "올해 무기체계 도입사업 완료"
- 이용철 방사청장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격상해야"
- 한화 김승연의 새해 첫 현장 경영지 '제주 우주센터'
- KF-21 보라매 탄 김민석. "방산 4대강국 가능성 체감"

[글로벌]

- 트럼프 "내년 국방예산 2,000조원으로 증액" 선언
- 트럼프, 방산기업들에 "배당할 돈으로 생산·유지보수 주력"
- 백악관 "그린란드 획득 논의중. 군 활용은 항상 선택지"
- 그린란드 노리는 美, 주민 1인당 1만~10만불 제공 검토
- 록히드마틴 패트리어트 요격체 매년 2,000발씩 생산키로
- 미 공군, 첫 T-7A 훈련기 인수
- 中, 희토류 "日 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중"
- 젤렌스키 "이달 내로 종전안 놓고 美 정상회의 희망"
-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테헤란 등 주요 도시 대규모 집회
- 예멘 분리주의 세력, 사우디 공격에 분열. 수장은 UAE 피신

Weekly Keyword

2025년 12월 국제선 리뷰

2025년 12월 국제 여객 수 856만명으로 전년비 6% 증가하는 흐름 지속. 노선별로는 여전히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이 강하며, 특히 한일령 여파로 중국 노선의 전년비 20% 이상 성장세 지속.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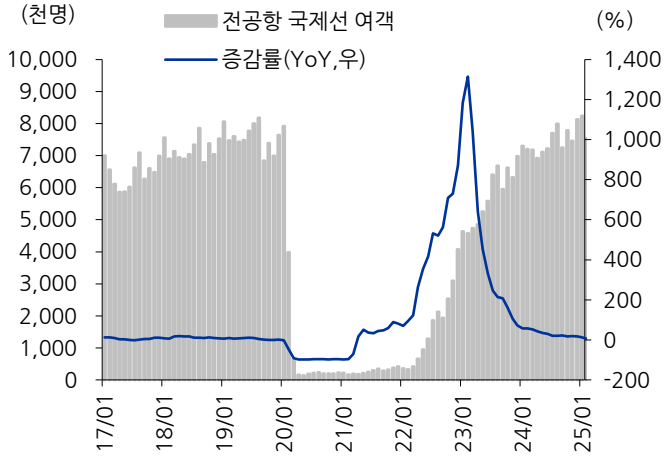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8)

[2025년 12월 국제선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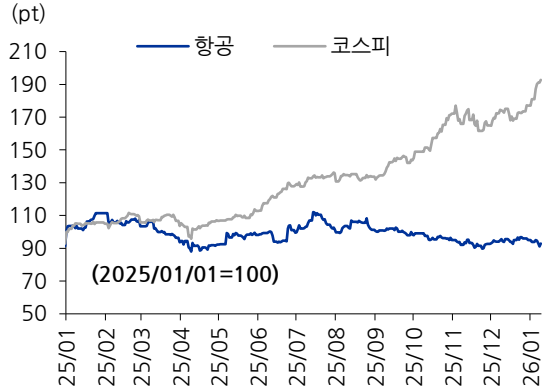
- 2025년 12월 전체 국제 여객 수 856만명(+6%yoy) 기록.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653만명(+2%yoy). 노선별로는 일본 노선 170만명(+3%yoy), 동남아 183만명(-11%yoy), 대양주 29만명(+16%yoy), 중국 105만명(+22%yoy), 미주 56만명(+1%yoy), 구주 35만명(+6%yoy) 기록.
-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 중심 견조한 여객 흐름 지속. 특히, 중국 노선이 중국 내 한일령 영향으로 전년비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 주목.

Key Chart: 전공항 국제선 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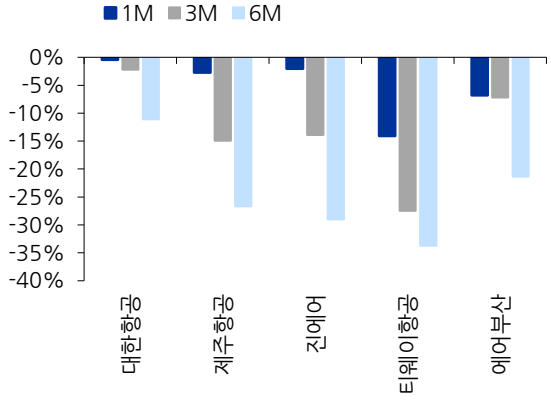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KAC,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01/05~01/11)

[여객/화물]

- 진에어, 에어부산과 김포·제주~부산, 제주~울산 공동운항
- 이스타, 5월 1일 부산~카자흐 알마티 취항
- 에어로케이항공, 청주-고베 신규 취항
- 2025년 항공여객 1억 2,500만 명 '역대 최대'
- 미국·인니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선정
- 새해 중국인 해외여행 '한국행 30% 증가, 일본 33% 감소"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아시아나 승무원 집합 허브 IOC 27년 3월 오픈
- 아시아나항공, 14일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
- 아시아나항공, T2 이전 앞두고 승객 혼선 예방에 총력
- 英, 독과점 우려 제기에 아시아나, 인천-런던 시간표 재편
- 티웨이항공, 엔진까지 리스로 공격적 투자 '눈길'

[기타]

- 아시아나 T1 라운지,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로 바뀐다

[글로벌]

- 중국 항공사들 에어버스 A320 148기 구매
- 알래스카항공 미국 보잉 항공기 110기 구매

Weekly Keyword

HD현대중공업의 26년 목표

HD현대중공업의 2026년도 수주 목표 발표. 204.2억불로 전년비 25% 증가한 수치. 조선은 144.9억불로 24% 증가. 증분의 대부분은 특수선, 그 중 해외 수주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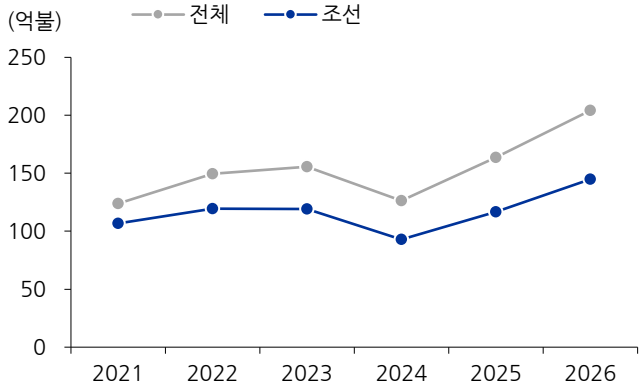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8)

[HD현대중공업의 26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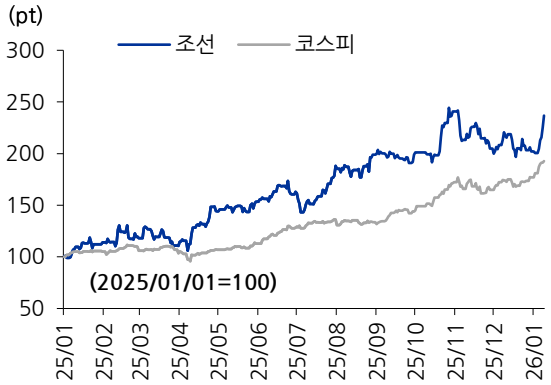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의 2026년도 수주 목표가 발표됨. 전체 수주 목표액은 204.2억불로 전년도 163.8억불 대비 무려 25% 증가한 수치(HD현대미포 수주 목표와 합산 값).
- 그 중 조선이 144.9억불로 전년비 크게 증가(+24%yoy). 올해 상선 분야에서 기대되는 LNGC 수주 등을 반영했겠으나, 증분의 상당 부분이 특수선 전망으로 추정하며, 한국 해군 발주보다는 해외 특수선 수주를 고려했을 것.
- MASGA는 이제 시작. 글로벌 군함 수요도 1,000척 이상으로 추정. 14일 간담회에서 구체화될 방산 수출 & MASGA 사업 비전에 주목.

Key Chart: HD현대중공업 수주 목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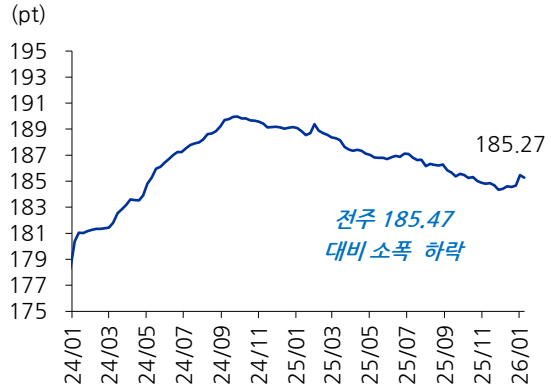


자료: HD현대중공업,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1/05~01/11)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새해 첫 수주. LNGC 4척 1.5조원 규모
- 에버그린, 4조원 대형 컨선 발주 추진. 한·중·일 3파전
- 장금상선, 승부수 던졌다. VLCC 최대 30척 확보

[특수선]

- HD현대重, 美 해군 군수지원함 MRO 1호 인도. 2번함 수주
- 삼성重 MSRA 취득 준비 돌입. 美 MRO 사업 역량 제고
- 加잠수함 두고 강훈식·김정관 급파. 한화·현대차 임원도 출동
- 민주당 방산특위, 12일 '한·캐 방산 범정부 협업 토론회'
- KDDX 경쟁입찰 4월 막 오른다. HD현대重·한화오션 경쟁
- SK오션플랜트, 美 MSRA 1분기 중 취득 기대
- HJ중공업 영도조선소, 美 MSRA '막판 단계' 통과

[기타]

- 마스가 첫 발 뗀다. 정부, 한미 조선협력 사업 발주
- 한화 "필리조선소 너무 작아". 미국 추가 조선소 인수 추진
- 삼성중공업, LNG선 中 사업장 건조 유지. '비용 절감' 목적
- 조선소 설립 추진 인도 산업부 장관, 울산 HD현대重 방문
- HD현대마린엔진, 中조선소와 620억 규모 엔진 계약 체결

[글로벌]

- 美 해군 구축함, 정비하느라 수명 3분의 1 허비
-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 HII 조선소서 '속도전' 주문
- 獨 TKMS, 경쟁사 킬 조선소 인수 타진
- TKMS·폭스바겐 원팀 구축 가능성. 캐나다 잠수함 최대변수
- 印·獨, 12조원 규모 잠수함 건조 계약 추진 중
- 日 조선 이마바리, JMU 지분 60% 인수 완료

Weekly Keyword

HMM 인수 난항

HMM 민영화 논의 재가동되며 포스코와 동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 인수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확대, 부산 본사 이전 등 정부 정책 변수까지 겹쳐 인수전 불확실성 확대 중.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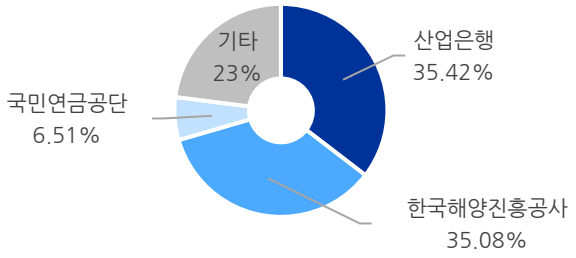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

[HMM 인수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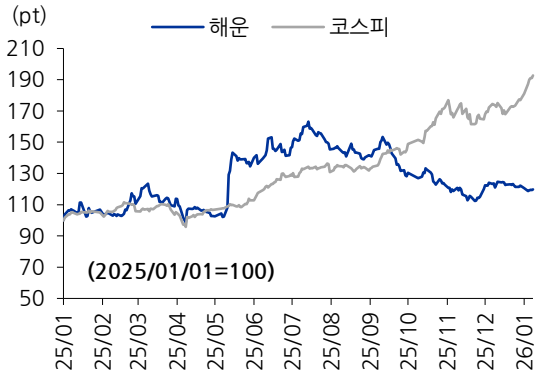
- 1/5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Q25말 기준 보유지분 35.42%)은 지분가치 재산정을 위해 회계법인 등에 RFP 발송. HMM 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포스코와 동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
- HMM 인수 자금은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예상. 인수 가능 여부보다 인수 이후 운영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 포스코는 최근 주력 사업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했으며 해운업 전문성 부족 논란 지속. 동원산업은 3Q25말 기준 보유 현금성자산이 4,934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수 이후 재무건정성 우려 불가피.
- 추가로 HMM 본사 부산 이전 논의가 민영화 시점과 맞물리며, 인수전 불확실성 확대. 1/4 HMM 육상노조는 이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발표. 인수 후보 입장에서 본사 이전과 노사 갈등 변수는 리스크로 작용, 매각 지연이나 인수 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Key Chart: HMM 지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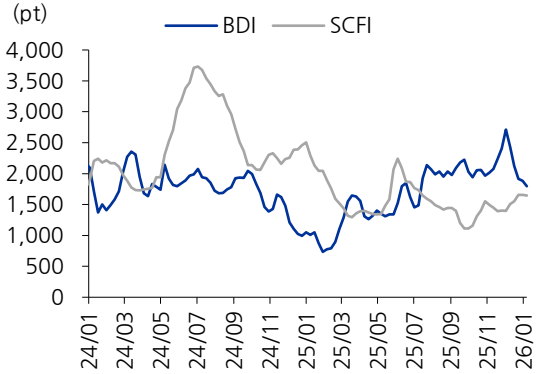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1/05~01/11)

[벌크선]

- Seacon, 벌크선 6척 약 2억달러에 인수
- Castor Maritime, 일본 벌크선 매각 후 재임대 계약 체결
- CMB Tech, 선박 8척 매각 2억 6,110만달러 자본 이익 예상

[탱커/가스선]

- 美 OFAC, 베네수엘라 원유운송관련 추가 제재
- 美 USCG, 베네수엘라 연계 유조선 2척 나포
- Scorpio Tankers, LR2 Product Tanker 2척 용선 계약 체결
- 베네수엘라 유조선 제재 속, 그림자 함대 러시아 국적선 재등록

[컨테이너선]

- 파산한 美 소매업체, HMM 대상 FMC에 소송제기
-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중심 국가 물류산업 핵심 거점화 전략 추진
- Evergreen, 인마셋 솔루션으로 선대 업그레이드
- COSCO, 중국 조선소와 4억 9천만달러 규모 건조 계약
- 물동량 감소로 26년초 미서부 항만 혼잡 완화될 전망
- 포틀랜드 항, 오리건 컨테이너 터미널 공식 출범
- 중국, 쿠웨이트 항만 건설에 41억불 투자
- CMA CGM, 미동안-호주에 새 항로 KEA 개설

[기타]

- 美 그린란드 압박에 덴마크, 상선대 확대로 대응
- V.Group, 탈탄소화 파트너 Njord 인수 발표
- 북유럽 겨울 기상 악화로 항만 터미널 작업 지연 예상
- Seatrade, JR 해운그룹에 전략적 지분투자